

세력균형(power balance)에서의 군사력 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김 명 수**

-
- I.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1.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의 의미와 힘의 추구방법
 - 2.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과 국가행동에 관한 이론 재규정
 - 3. 분석의 틀
 - III. 제1, 2차 세계대전기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행동
 - 2. 전간기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 3. 소결론
 - IV.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행동
 - 1.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 2. 냉전시기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 3. 소결론
 - V. 경험적 고찰결과와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 1. 경험적 고찰을 통해서 본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 2.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 VI. 결론

※ 부록 : 시기별 군사력 현황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현 합참 작전본부 작전 2처장, 국민대학원 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 해군사관학교(43기), 세종대 왕함장.

I. 서론

1. 연구목적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anarchy)'와 '불확실성(uncertainty)'의 특성을 지닌 상황에서 국가는 생존과 안전의 수단이 필요하며, 현실주의자들은 그 수단을 '힘(power)'¹⁾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세력균형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 이론은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²⁾와 신현실주의의 태두인 월츠(Kenneth N. Waltz)³⁾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론이다.

월츠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마다 그 능력이 다르고 힘의 분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힘의 균형'과 '균형의 유지'를 통하여 생존과 안전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월츠 자신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용어라 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세력균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역시 인정했으나,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 균형은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월츠의 개념 정립 이후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스웰러(Randall L. Schweller), 왈트(Stephen M. Walt) 등 많은 학자들이 월츠의 이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와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힘의 균형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힘'과 '균형'과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물리적 힘, 즉 군사력이라는 '힘'과 '균형'의 개념을 보다 수학적,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 'Power'에 대한 해석은 국내 학자들에게도 '힘'으로 또는 '국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힘'으로 해석하며, 의미를 고려하여 '세력' 등으로도 적절히 사용하기로 한다.

2) Hans J. Morgenthau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85).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세력균형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고 본다.

4) Kenneth N.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pp.199-204.

연구가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체제에서 국가 생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힘을 확보하고, 그 힘의 균형여부에 따라 ‘평화’와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이론을 역사적 경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로, 국가 간 힘을 동일한 영역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여, 육군력, 해군력, 국방비를 군사력의 세가지 속성(attribute)으로 나누어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수치화하여 측정하고 비교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셋째는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노력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어떻게 협력했으며, 그 결과 세력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넷째는 군사력의 균형을 육군 중심의 대륙국가, 해군 중심의 해양국가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이러한 결과는 균형과 불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힘의 역학 구도에서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세력균형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월츠, 군사력을 국가의 주요 힘이라는 것을 제창한 미어샤이머 등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헌적 고찰을 통해 세력균형을 재규정하여 분석의 틀을 수립하고, 이를 군사력 측면에서 수치화한 모델을 바탕으로 과거 역사적 사례에서 군사력의 균형 범위(range)와 그 군사력 범위에서 국가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본다.

시간적 범위는 세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인 1880년부터 냉전시기까지 군사력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국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보았다. 세력균형이론에서 힘은 경제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을 힘의 주요변수라 전제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살펴볼 시간적 범위 내에서 군비가 경제력과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과 군사력의 측정 변수인 병력, 군함의 톤수, 국방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의 존재 등 여러 면에서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측정요소는 지상군의 병력, 군함의 톤수, 국방비 이렇게 세 가지이며, 이러한 요소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냉전시기의 유럽국가,

미국, 동북아시아 국가의 상대적 군사력을 비교하고,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대한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군사력 균형의 평균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한 군사력의 변화가 국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의 의미와 힘의 추구방법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은 국제체제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이다.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로 설명하며 국가 간 갈등은 무정부상태의 국제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며, 국가 간 권력 투쟁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월츠는 세력균형이론을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자이다. 그는 세력균형의 조건으로 국제질서의 '무정부상태(anarchy)'와 그 안에서 생존을 희망하는 단위, '국가(State)'의 존재를 들었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생존 수단은 '힘', 즉 '군사력'이며 국가는 자조(self-help)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존(survival) 및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을 위한 협력이나 동맹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라도 무력(force)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더 강한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갖추어야만 하며, 그렇기에 전쟁과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한다.⁵⁾

공격적 현실주의자(offensive realist)로 국가생존의 주요한 변수를 군사력이라고 보았던 미어샤이머는 *Tragedy of Great Power*(2001)에서 냉전의 종결로 인한 '영구평화(Perpetual peace)'의 도래와 강대국 간 잠재적 군사적 경쟁 관계가 없는 국제공동체를 통한 협력 가능성의 증대에 대한 일부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위협성 등은 항상 잠재해 있고, 이러한 이유에

5)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p.103-116.

서 강대국들은 그러한 위협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과 안보의 경쟁을 통해 궁극적인 패권(hegemony) 국가를 추구하며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최상의 생존을 보장받는 방법을 패권국화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미어샤이머는 힘을 잠재적 힘과 실질적 힘으로 구분했고, 국가의 잠재적 힘은 인구의 크기, 부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이 두 자산이 곧 실질적 힘인 군사력 건설의 주요 요소로 보았다. 이 중에서도 힘의 확장과 영토 정복 및 통제에 필요한 주요수단인 육군력(land power)을 으뜸으로 보았으며, 이를 지원하는 해군력(naval force)과 공군력(air force)를 그 다음으로 보았다.⁶⁾

대부분 국가의 생존을 위해 힘의 추구에는 동일한 주장하나, 힘의 종류와 추구하는 힘의 수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힘의 핵심으로 군사력(military power)을 포함하고, 힘의 추구 정도는 극대화와 적정 수준을 주장하기도 한다. 모겐소 등은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윌츠 등은 적정 수준에서 힘의 추구를 주장한다.⁷⁾

모겐소는 국가의 힘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고, 국제정치이론이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힘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힘을 개념적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힘'과 같이 '다른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힘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을 국가 힘의 명백한 요소(obvious measure)로, 그 시현(demonstration)을 타국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⁸⁾

윌츠는 적정수준의 힘에 대해 주장한다. 세력균형의 정치는 위험하지만 무시도 여전히 위험하며,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희망하는 국가가 너무 강해도, 또는 너무 약해도 안 된다고 보았다.⁹⁾ 어떤 한 국가의 평화전략은 타 국가들의 평화 또는 전쟁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너무 약하면 잠재적 강대국에게 위협을 당하며 너무 강할 경우 잠재적 약소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힘이란 너무

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7) Kenneth N. Waltz, "The Origin of War in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8, No.4 (spring 1988), p.6.; Richard K. Betts, *Conflict After The Cold War: Argument on causes of war and peace* (New York: PEARSON Longman, 2008), pp.94~105.; Randall L. Schweller,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 Balancing Proposition," *APSR* Vol.92, No.4 (December 1997), p.927.

8) Morgenthau, *op. cit.*, p.32, 92, 117.

9)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pp.222-223.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군사력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월츠가 정립한 힘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미어샤이머는 세력균형에서 힘의 핵심요소를 군사력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타국을 점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육군의 중요성을 제창했다. 여기에 근거하여 강대국의 기준을 상대적(relative) 군사적 능력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국에 대항하여 전면적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자산(military assets)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결국 힘은 짧은 시간 내에 급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변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가의 군사력은 현상태의 현실적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력균형에서 군사력은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자기방어의 핵심적 힘을 의미하며,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은 군사력의 균형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힘의 핵심을 군사력이라 본다면, 힘의 추구방법이라는 것은 곧 군사력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국가 단위의 내부적 방법과 외부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증강을 통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과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을 들었는데,¹⁰⁾ 이 중 내적균형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 외적균형은 동맹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동맹과 같은 협력체제는 불신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일시적 현상일 뿐 완전한 자기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시적 현상일지라도 자국 군사력 증강과 국가 간 동맹과 같은 협력을 모두 활용해야만 보다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력균형이론이 현실적 국제정치에서 과거와 현재에도 국제정치의 현실을 잘 설명하여 주는 이론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논쟁과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슈뢰더(Paul W. Schroeder)는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적현실주의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무정부적 상태에서 국가들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 약소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에게도 ‘균형’이나 ‘자조’만이 아니라, ‘숨기(hiding)’, ‘초월(transcending)’, ‘편승(bandwagoning)’도 한다는 것이다.¹¹⁾ 그리고 오르겐스키(A. F. K. Organski)는 그의 저서 World

10) 이동선, “현실주의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안전보장,”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 2010), p.85.

Politics에서 산업혁명 이후 세력균형이론의 가정들 중 동맹관계와 국력증대에 관한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산업화, 근대화의 수준 차이에 따라 국력성장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외적 수단(동맹 등)에 의한 국력 증대 보다 내적수단에 의한 국력 증대 효과가 월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쟁원인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¹²⁾ 또한 산업 혁명 이후 국제체제에서 힘의 변화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로서도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쿠글러(Kugler)는 전쟁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온 3가지 모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 세력전이모델이 전쟁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델임을 주장한다.¹³⁾

2.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과 국가행동에 관한 이론 재규정

세력균형이론에서 '세력', '힘'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국토, 인구,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군사력은 무정부의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직접적 생존수단이자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사력은 실질적인 힘의 투사(projection)와 힘의 현시(present)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도 한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 승리의 요인으로 국민, 정부, 군대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¹⁴⁾

무정부적 국제질서에서 무력은 자기보존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요소도 주요하기는 하나, 본 연구는 세력균형의 핵심 요소인 군사력을 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상정하여 군사력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따라 평화 또는 전쟁으로 발생한다는 세력균형이론을 과

11) Paul W. Schroeder,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pp.108-148.

12)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pp.344-346.

13)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Cause, Beginning and Prediction, The Power Transition," *The War Leg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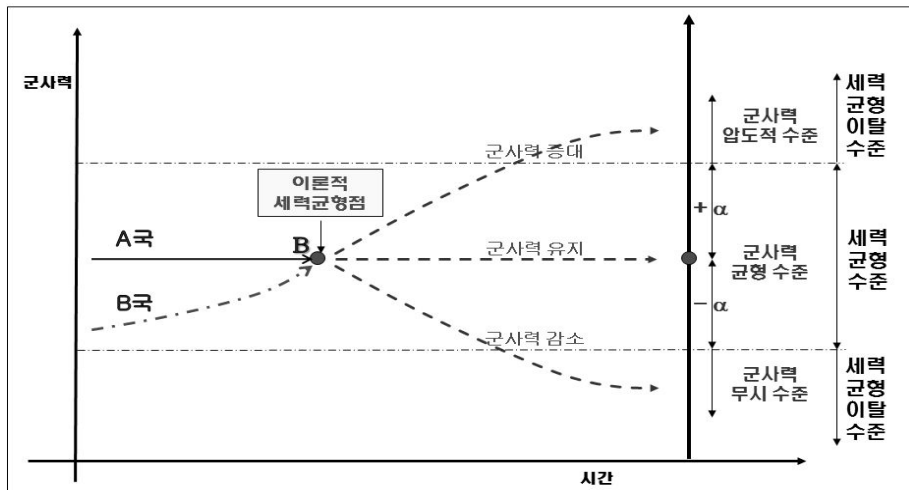
14)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Rowohlt Taschenbuch Verlag* (1832),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1), pp.57-58.

거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에서 ‘균형(balance)’ 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일반적으로 ‘균형(balance)’은 이론상 ‘평형(equilibrium)’ 그리고 ‘안정(stability)’이란 의미로 해석되었다. 균형(balance)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로 과학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정량이나 비율, 1:1을 의미한다. 국제정치에서도 상대적 힘의 균형을 ‘점(point)’ 개념에서 접근함에 따라 균형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고 어렵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균형(balance)은 평형(equilibrium), 같은 점(same point)이 아니라 ‘대등하다(even)’, ‘수준(정도, level) 또는 범위(range)’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계학에서 두 집단의 표본(sample)을 비교할 때 A집단과 B집단의 표본의 평균(mean)과 편차(σ)가 모집단의 분포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범위에 있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것과 같다. 즉 A, B집단은 동일한 확률분포를 적용가능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은 세력균형에서 핵심 독립변수로 군사력 수준의 변화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평화 또는 전쟁이 발생하고 군사력의 균형은 일정한 범위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관계를 개념적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의 수준이 $B - \alpha \sim B + \alpha$ 의 균형 범위(range)에 있으면 힘의 균형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1> 세력균형과 군사력과의 개념적 상관관계



군사력은 병력, 해군력과 국방비를 측정의 수단으로 한다. 군사력에서 육군은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것처럼 전쟁에서 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군으로 병력의 수는 한 국가의 육군의 크기를 아직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력은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며, 과거 국제 군비통제의 방법으로 척수와 톤수를 이용된 사례도 있으며, 국방비는 냉전시기에 국가의 군사력 수준의 척도로 이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군사력의 속성으로 핵무기는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핵무기는 전략무기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 자체가 상호간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세력균형의 논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군사력을 측정하는 요소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하며 국가체제에서 주체인 국가는 불균형의 상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의 군사력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균형을 벗어난 경우 가능한 한 동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의 확보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세력균형을 이루는 군사력의 수준이 범위(range)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은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국가행동에 대한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상대국 행동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가능한 상대국보다 우세한 힘의 확보와 안전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먼저 군사력에 대한 국가의 행동은 증강, 유지, 감소에 따라 3가지 형태의 국가행동으로 조합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국가행동은 군사력을 증가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6개 국가행동모형으로 <표 1>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1> 군사력에 대한 6개 국가행동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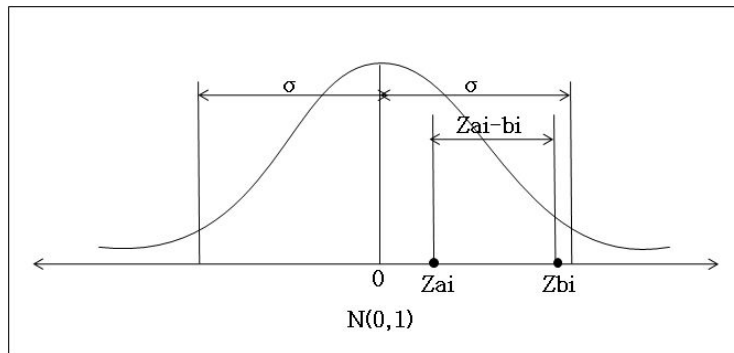
구 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내부적 힘의 추구	양국 증대	양국 유지	양국 감소	1국 증대 1국 유지	1국 증대 1국 감소	1국 유지 1국 감소
외부적 힘의 추구	군사협력 여부					

3. 분석의 틀

폴 케네디는 세계정치(world politics) 과정을 이해기 위해서는 물질적(material)이고 장기적인 요소들에 집중해야하고, 힘은 상대적인 것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사회들 사이의 빈도 높은 비교로 측정되고 서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⁵⁾ 이는 정치의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례를 통하여 상대적 군사력 수준의 비교를 위한 빈도수와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군사력 독립변수를 동일한 지표로 비교한다면, 군사력의 균형수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군의 병력수, 해군의 총톤수, 국방비를 군사력이라는 독립변수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단위를 동일한 단위로 변경을 하여야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동일한 기준의 평면(domain or plane)에서 각 국가의 군사력의 균형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표준정규분포상의 표준값(Z) 의미



표준화된 지수 또는 값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의 표준화 값이 필요한데, 동일한 지표로 사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표준값(Z)’이다.¹⁶⁾ 그리고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

15)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New York: Vintage Book,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89),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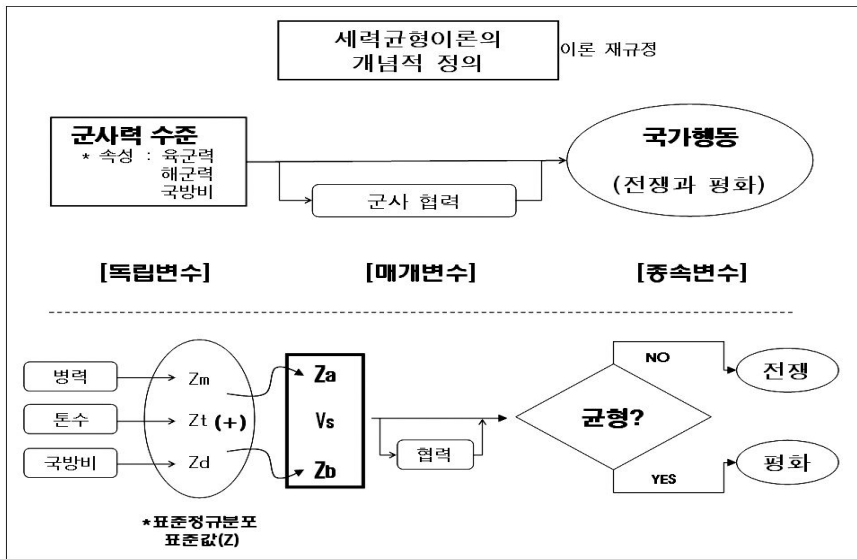
16) R. E. Walpole, R. H. Myers, S. L. Myers, and K. Ye,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s and Scientists* 9th ed. (Pearson, 2012), p.172, 233. 통계전체 분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연속확률분포는 정규분포이며, 많은 현상을 근사적으로 잘 설명한다. 만약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한다면 해당하는 샘플링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는 중심극한정

준정규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을 ‘표준화한다(standardize)’라고 표현하고 그 변수를 ‘Z’로 표기한다.¹⁷⁾

그리고 A, B국가 군사력의 독립변수인 병력(명), 톤수(Ton), 국방비(US \$)를 각각 비교하여 표준화값(Z)으로 변환하여 국가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표준값 Z_{ai} - Z_{bi} 값은 A국의 Z_{ai} 와 B국의 Z_{bi} 의 거리를 의미하며, A, B국의 Z값에 대한 거리차로 군사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자국 군비증강과 더불어 동맹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이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 협력이 힘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 3>과 같은 분석의 틀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림 3> 분석의 틀



최종적으로는 경험사례를 종합하여 산출된 군사력의 균형수준을 세력균형의 개념적 그래프에 적용하여 동북아시아에 적용하여 그것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리(Central Limit Theorem)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G. Casella and R. L. Berger, *Statistical Inference* 2nd ed. (Duxbury, 2002), p.237. 중심극한정리를 통해 어떠한 가정도 없이 출발하여 정규분포에 이르게 되며, 항상 가장 먼저 개략적 계산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박성현, 『현대실험계획법』 (서울: 민영사, 2003), pp.23-25. 만약 모집단이 비정규분포라면 샘플링 데이터 n(샘플의 수)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분포에 접근하며, 표준화값은 표준정규분포에 접근한다.

17) 임의숙 등, 『통계학 입문』 (서울: 京文社, 1996), pp.123-133.

Ⅲ. 제1, 2차 세계대전기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행동

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전쟁 원인

1900년대 유럽의 동맹외교는 상호간의 두려움과 경쟁관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879년 비스마르크의 독일-오스트리아간의 이국동맹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삼제동맹(Three Emperor's League)으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이국동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독일이 자동 참전한다는 것이었고, 1882년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략에 대비한 동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독일의 행동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러시아의 발칸 방비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프랑스와 러시아의 협력 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행동은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가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적절한 동맹을 가지고 있지 못한 러시아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고,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 독일을 견제하는 상호이익이 있었으며, 1894년 프랑스-러시아 동맹으로 이어지며, 다소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부상으로 영국과 대립, 1908년 발칸사태로 러시아의 영국과 동맹 강화는 삼국협상과 삼국동맹 간에 극한 힘의 대립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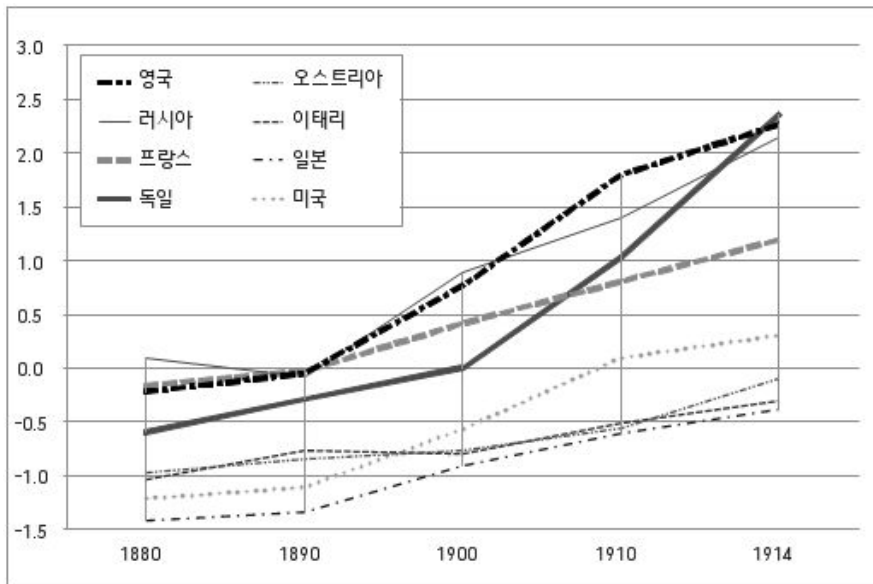
결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의 암살로 7월의 위기(July Crisis)는 외교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강력한 삼국동맹국과 삼국협상국의 상관관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체제의 불안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력균형과 독일 정부의 군국주의적(militarist)이고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인 특성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월츠는 세 번째 이미지 수준에서 본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의 원인은 양대 진영의 필연적 전쟁이라 분석하였다.¹⁸⁾

18)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p.10.

나.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육군력, 해군력, 국방비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4> 같이 1880년부터 영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순이었으며, 러시아가 1880년 1900년에 영국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1900년 이후 영국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고, 1910년에 프랑스를 추월하며 1914년에 최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은 군사력이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그림 4>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별 군사력 표준값(Z) 비교



이들 국가 간의 조합은 <표 2>와 같이 분석할 수 있으며, 약 11개의 국가 간, 동맹과 협력으로 구성하여 군사력의 균형관계를 종합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 간의 군사력 비교

구 분		1880	1890	1900	1910	1914	평균	
1	삼국동맹 vs 삼국협상	군사력비 차(Pa-b)	0.06	0.76	0.83	2.71	3.38	1.55
		군사력 표준값 차(Za-b)	0.15	1.24	1.32	4.04	4.90	2.33
2	독일 vs 프랑스	군사력비 차(Pa-b)	0.29	0.17	0.29	0.18	0.74	0.33
		군사력 표준값 차(Za-b)	0.43	0.26	0.42	0.23	1.16	0.50
3	독일 vs 영국	군사력비 차(Pa-b)	0.33	0.24	0.61	0.69	0.25	0.42
		군사력 표준값 차(Za-b)	0.37	0.24	0.77	0.76	0.09	0.44

〈표 3〉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 간의 군사력비(P) 및 표준값(Z) 종합분석 결과

구 분	군사력비(P)	군사력 표준값(Z)	비고
군사력 균형 수준	B-25~B+25% (0.50)	0.77이하	병력 표준값 : 1.26 톤수 표준값 : 0.69 국방비 표준값 : 0.73
육지 경계 국가 군사력 균형수준	B-23.5%~B+23.5% (0.47)	0.75이하	
해상 경계 국가 군사력 균형 수준	B-29.5~B+29.5% (0.59)	0.82이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요 국가들의 상대적 군사력 균형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군사력비차(Pa-b)의 평균은 50%, 군사력 표준값차(Za-b)의 평균은 0.77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지를 경계로 하는 국가들의 표준값차(Za-b) 평균이 0.75,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의 표준값차(Za-b) 평균이 0.82로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의 균형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들 간의 군사력 균형 수준의 범위(range)가 더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상을 경계로 하는 국가의 대립에서 군사력의 균형수준의 범위가 좁게 분포하고, 육군력 중심의 군사력으로 대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는 영국과 독일의 비교 사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해군력에서는 영국이 압도적 수준을 유지하고, 독일은 육군력에서 압도적 수준을 유지하며, 해군력과 육군력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군사력 균

형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요 국가들의 전체적인 군사력 변화를 살펴보면, 1880년에서 1890년 동안 군사력비차(Pa-b)의 평균과 표준값차(Za-b)의 평균이 줄어들었지만, 1900년 이후부터는 군사력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부터 표준값(Z)이 0.8이상으로 군사력 균형수준을 넘어서며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과 군사력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증강하였고 군사협력도 하였다. 군사력의 변화에서 전쟁 발생 이전에 국가 간의 군사협력을 통한 국가군 간에도 힘의 불균형이 발생되었고, 국가 간에도 불균형이 발생되었다. 또한 군사력의 수준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이며, 무시 군사력 수준의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였다. 국가 군에서 독일이 초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힘의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변화되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의 배신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독일과 프랑스는 균형 상태에서 전쟁 발발 이전 4년간의 급진적인 독일의 군사력 증강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1880년 이국동맹 상황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삼국동맹을 형성한 1890년부터는 삼국협상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국가의 군사력에 비해 군사력 균형은 무너지고 ($Za-b=1.24 > 0.77$) 말았으나, 삼국협상체제가 형성된 1910년부터 삼국동맹국의 군사력을 재역전하였고, 1914년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에서 이탈함으로써 삼국협상국과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동맹과 협력은 국가군의 군사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제체제의 불균형과 불안전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변화가 국가 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의 군사력의 변화는 끊임없이 발생된다. 이들 4개국

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1890년대에 군사력 표준값차($Za-b$)가 0.3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 군사력의 격차는 다시 벌어져 독일에게는 러시아와 영국이 불균형 상태의 위협이었지만, 1914년 군사력의 격차를 줄이며 다시 균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와는 1910년까지 프랑스 우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다가 1914년에 독일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균형은 무너진다.

독일의 경우 1910년까지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군사력 우위의 상대적 위협국이었고, 1910년 지속적인 자국 군사력의 증강과 부족한 군사력을 1880년까지는 적절한 동맹과 협력이라는 국가행동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890년에 이르러 삼국동맹국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위협하였고, 1910년대 삼국협상으로 군사력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삼국협상에서 프랑스는 자국의 군사력 증가와 더불어 삼국동맹의 군사력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적 힘의 확보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14년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에서 이탈하며 군사력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삼국동맹국과 삼국협상국과의 군사력 차이가 가장 큰 시기는 1890년대로 삼국동맹에게는 가장 좋은 전쟁의 기회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1880년대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힘의 균형을 위해 자국의 지속적인 군사력을 증강하고, 부족한 힘의 확보를 위해 군사협력을 통하여 균형을 추구했지만 힘의 균형 유지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삼국동맹은 군사력이 중위권과 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의 동맹이었고, 삼국협상은 강대국들과의 협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삼국동맹은 생존을 위한 힘의 협력이었다면, 삼국협상은 약소국들을 압도하는 힘을 형성하여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과 프랑스, 영국

육상을 경계로 대립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식민지 정책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성장에 가장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독일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10년까지는 전체 군사력비차($Pa-b$)이는 0.30이하, 군사력 표준값차($Za-b$)이도 0.5이하로 균형을 잘 유지했다고 볼 수 있으나, 1910년 독일의 군사력에 추월당하며 1914년 양국의 군사력 수준은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자국의 군사력 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군사협력(convention)을 추구하며 과거 대립관계에 있던 영국을 적대국에서 협력국으로 전환하여, 해군력을 통한 독일의 봉쇄와 러시아를 이용한 독일의 힘의 분산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독자적인 힘으로는 독일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지만, 삼국협상으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행동은 양국이 군비경쟁을 하는 형태로 모델1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완만한 증강을 한 프랑스와 4년 만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독일과 영국의 대립은 지리적으로 해양을 경계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다. 육군의 병력보다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립을 이루었다. 특히 독일의 대함대 건설은 제해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80년대 독일의 군사력은 1910년까지 영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나, 이후 독일은 영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arms race)에 뛰어들었으며, 1914년 독일의 군사력은 육군력과 국방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며 영국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대함대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2배 이상의 월등한 해군력을 유지하였다. 결국 영국과 독일은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의 특징으로 해군력과 육군력의 균형형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전간기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과 전쟁원인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 1919. 6. 28.)¹⁹⁾이 체결되었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엄청난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비록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국가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국가 간의 이익 갈등은 1920년대까지 영토문제, 군사력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패전국인 독일의 비무장화와 거액의 배상문제로 독일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19)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 <http://www.firstworldwar.com/> (검색일: 2014. 6. 18).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의 군비를 제한했는데, 육군의 총병력은 10만 명 초과가 불가하고, 해군의 총톤수는 10,000톤으로 제한되고 잠수함의 생산은 금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관망의 자세로 변했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국내적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국제적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워싱턴회의를 통해 영국, 일본의 해군력 군비경쟁을 억제하고,²⁰⁾ 동맹체제의 해체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국제체제에서 실질적인 강대국으로서 개입을 희망하지 않았다.²¹⁾ 그러나 일본은 비록 산둥반도를 중국에게 반환하였지만, 독일의 패배로 독일의 식민지 도서들을 인계받고 국제무대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승전국이자 엄청난 피해복구를 해야 하는 프랑스는 독일의 미래 재부상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여 전쟁 배상금 지불에 대한 압박과 지속적인 고립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 미국과 영국은 다소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²²⁾ 국제체제는 패전국과 전승국간의 새로운 대립으로 이어졌고, 승전국간에도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1930년대 독일은 경제적인 회복과 1933년 히틀러의 등장으로 1935년 재군비를 선언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강대국들의 미온적 행동으로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1937년 일본의 만주침공과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점령 등에 대하여 강대국과 국제사회 역할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사건은 베르사유조약 약화로 이어졌다. 독일 팽창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협조가 불가피하였고, 미국과 소련도 그 위협을 심각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영국, 소련, 미국의 강대국들은 힘에 의한 조약의 유지와 팽창국의 행동을 저지할 협력적 행동 의지도 거의 없는 국가 간에 불신을 가진 상황에서

20) “워싱턴 해군조약,” <http://www.princeton.edu/> (검색일: 2013. 8. 3). 해군의 총톤수 기본 비율은 영국(5):미국(5):일본(3):프랑스(1.75):이탈리아(1.75)이었으며, 영국과 미국은 52만 5천 톤, 일본 31만 5천 톤, 프랑스, 이탈리아는 6만 톤이었다. 그리고 주력함의 경우 3.5만 톤을 초과할 수 없고, 함포도 16인치이하, 보조함 1만 톤 이하, 항공모함 2만 7천 톤 이하로 협약하였다.

21) 김순규, “신국제정치사 재분석,” 金順圭, 『신국제정치사』 (서울: 박영사, 1994), p.258, p.296. 19세기 중기 이후 오랜 기간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며, 해군력의 역량에 의존하여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온 열강들의 해군력을 미국은 제한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1921년 세계 강대국의 군비증대에 따른 국가 간의 조정을 위한 워싱턴 회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4개국 조약(태평양지역 도서 및 속지와 영지에 관한 조약)과 이탈리아가 포함된 해군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의 의미는 미국 중심의 해군 군비제한이며, 영국과 일본의 동맹체제 해체가 미국의 목적이었으나, 1927년 해군조약의 실패 이후 영국, 미국, 일본의 군비경쟁은 가열되었다. 1933년 미국 37척 19만 2천 890톤, 영국 139척 45만 726톤, 일본 154척 38만 1천 944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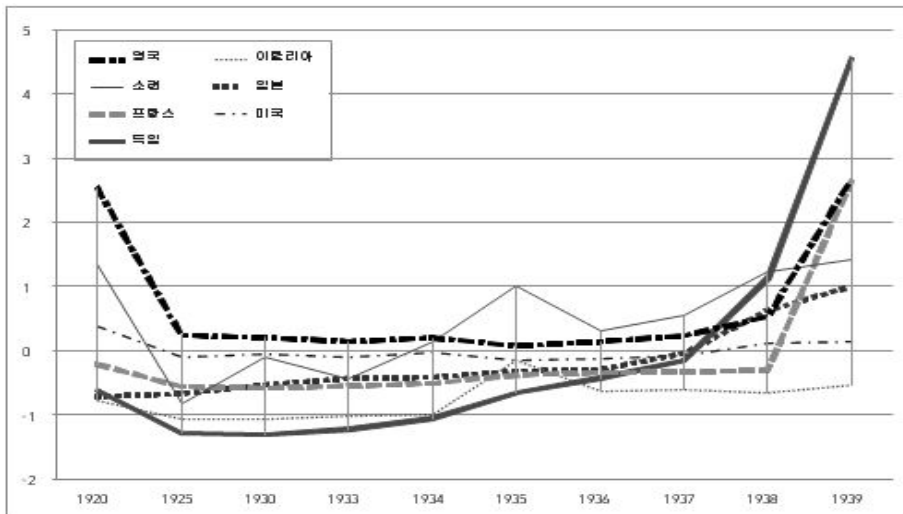
22) Kennedy, *op. cit.*, p.287. 벨기에(1921년), 폴란드(1921년), 체코슬라비아(1924년), 루마니아(1926년) 등 프랑스는 개별적 동맹을 통한 독일에 대한 동유럽 연합블럭 형성을 시도하였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어갔다. 1936년 독일과 일본은 반공협정(反共協定, anti-comintern pact) 체결과 이탈리아가 참여함으로써 3국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 협정은 소련에 대항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구의 미국, 영국, 프랑스 반공주의자들에게 일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며, 3국의 대외침략의 정당성을 용인 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1939년 독일과 이탈리아가 군사동맹(Pact of Steel)을 맺음으로써 1940년에는 삼국동맹(Tripartite pact)이 이루어졌다.

나. 국가별 상대적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군사력 수준에서 1930년 초반에는 영국, 후반기에는 소련, 말기에는 독일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평가된다. 군사력의 양적인 면에선 소련이 전반적으로 강대국으로 나타났고, 군사력의 표준값(Z)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국과 소련이 강대국이었으며, 그 뒤를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순위였다. 그러나 1938년에는 독일, 소련,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서로 변화되었고, 독일은 급진적인 군사력의 증강에 영국과 프랑스도 1939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림 5〉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 군사력 표준값(Z) 비교



특히, 독일이 1920년대 최하위의 군사력 국가에서 1930년대 후반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들 간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5>과 같다.

<표 4>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주요 국가 간의 군사력 비교

구 분		1920	1930	1935	1936	1937	1938	1939	평균	
1	추축국 vs 연합국	군사력비 차(Pa-b)	0.34	0.44	0.08	0.76	1.83	3.23	1.11	0.90
	군사력 표준값 차(Za-b)	0.41	0.72	0.28	1.25	2.80	4.65	1.32	1.34	
2	반공국 vs 소련	군사력비 차(Pa-b)	1.66	0.96	1.30	0.13	1.02	1.92	4.79	1.37
	군사력 표준값 차(Za-b)	1.98	1.20	1.66	0.59	1.92	3.13	6.86	1.98	
3	독일 vs 프랑스	군사력비 차(Pa-b)	0.34	0.44	0.08	0.07	0.29	1.28	1.65	0.53
	군사력 표준값 차(Za-b)	0.41	0.72	0.28	0.09	0.18	1.43	1.90	0.70	
4	독일 vs 영국	군사력비 차(Pa-b)	1.58	0.71	0.15	0.02	0.13	0.94	1.89	0.72
	군사력 표준값 차(Za-b)	3.16	1.51	0.73	0.57	0.38	0.60	1.86	1.30	
5	일본 vs 미국	군사력비 차(Pa-b)	0.58	0.24	0.07	0.08	0.08	0.48	0.74	0.28
	군사력 표준값 차(Za-b)	1.10	0.47	0.17	0.17	0.02	0.52	0.86	0.46	

<표 5>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 간의 군사력비(P) 및 표준값(Z) 종합분석 결과

구 분	군사력비	군사력 표준값	비교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군사력비, 표준값)
군사력 균형수준	B-31.5~B+31.5% (0.63)	0.89이하	0.50, 0.77
육지 경계 국가 군사력 균형수준	B-34%~B+34% (0.68)	0.86이하	0.47, 0.75
해상 경계 국가 군사력 균형수준	B-30~B+30% (60%)	0.91이하	0.59, 0.8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요 국가들의 상대적 군사력 균형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가들의 전력비차(Pa-b)의 평균은 63%, 군사력 표준값차(Za-b)의 평균은 0.89로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 간의 균형수준인 군사력비차(Pa-b) 평균 0.50, 군사력 표준값차(Za-b) 평균 0.77보다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모든 전력에서 양적인 증가와 국가 간의 군사력의 차이가 넓게 분포하였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과 영국 등 해양을 경계로 한 국가 간의 균형수준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분석과 동일하게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 간의 군사력 표준값이 육지를 경계로 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제1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 국가 간의 균형 수준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요 국가들의 전체적인 군사력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력의 감소와 전후 뒤처리 등으로 군사력의 불균형상태에서 1930년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들의 군사력 균형이 유지되고, 군사력의 차이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38년부터 국가들 간의 군사력의 차이가 급격히 발생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추축국과 연합국, 반공국과 소련

1936년부터 독일은 일본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형성하였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기 전까지 군사적 동맹을 형성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개별 국가의 군사력에만 의존한 균형을 추구하였다. 소련은 독일이 일본과 반공동맹 상태에서 1938년 일본의 소련 침공에도 불구하고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 또는 반공국과 프랑스 중심의 연합국과 소련에 대한 군사력 표준값(Z)의 변화를 살펴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추축국이 1936년부터 프랑스, 1937년부터 소련과 급격한 군사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일본 및 이탈리아와 반공동맹, 강철조약 등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1936년부터 군사력 표준값차(Za-b=0.89) 평균을 넘어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독자적 힘으로 균형이 불가한 상태에서 힘의 회복 또는 재균형을 위해 1939년 영국과 연합하지만, 영국

과의 협력에도 안정적인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은 자국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소련과는 협력하고,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협력을 통하여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서 힘의 팽창이 가능한 약소국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협력과 배신이라는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프랑스와 소련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적대국의 힘의 팽창에 자국의 군사력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고, 국제적 힘의 협력도 시기적으로 적절히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2) 독일과 프랑스, 영국

1936년을 기점으로 독일의 군사력이 프랑스를 추월하는데 성공하며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대륙과 대외에 우군이 없는 프랑스는 독자적인 힘으로 국가의 생존을 유지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행동의 측면에서 독일은 1920년대부터 전쟁의 패전국으로 열세의 군사력에서 프랑스와 군사력 균형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군사력을 증대하여 프랑스의 힘을 추월하며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였다. 프랑스도 1936년까지 군사력의 우위에서 균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37년 독일에게 추월당하며 균형을 위한 군사력의 일부 증가를 시도하였지만, 독일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독일의 이탈리아와의 동맹은 프랑스에게 치명적이었고, 외부적으로 힘을 얻지 못한 프랑스는 완전히 힘의 균형을 잃고 말았다.

영국의 군사력은 제1차 세계대전과 동일하게 해군력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육군병력은 1930년부터 1937년까지 20만 이하로 유지되었고, 독일 패전 이후 10만을 유지하는 시기만 영국이 우위에 있었고, 1934년 이후로 독일이 우위를 유지하였으며, 병력과 국방비에서 급격한 증강을 보이며 영국과 격차를 벌려갔다. 그러나 해군력은 전투함 150만 톤 이상을 유지하며 압도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히틀러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1930년대까지 독일보다 지중해의 이탈리아와 아시아의 일본이 영국으로선 더 성가신 존재였다.²³⁾ 하지만 1934년부터 국방비의 증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변환되어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3) Colin S. Gray, *W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7), p.120.

독일과 영국의 국가행동모델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군사력은 증대되는 반면, 영국의 군사력 유지 또는 감소하는 모델4, 5의 형태라 할 수 있다.

3)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군사력은 해군력과 국방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강된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해군력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 국방비에서는 미국의 변화는 1937년부터 보이지만, 1938년 이후 일본이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한다. 그러나 육군력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비하여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한다. 미국이 육군력을 20만 이하에서 유지하였고 일본의 증가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미국이 자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타국에서의 전쟁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팽창을 저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으며, 이 시기 동안 일본의 팽창은 약소국을 대상으로 충분히 전쟁과 점령이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행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정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군사력의 우위에서 균형을 유지하였으나,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군사력의 증강으로 1938년부터 일본 우위의 균형 수준으로 군사력의 역전을 이룩한다. 그러나 육군 병력의 차이는 해양을 경계로 하는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었으며, 세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은 어떠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론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군사력의 균형은 50% 이내였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보다 63%이내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서는 분포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력 균형수준만을 놓고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들보다 상대국가의 군사력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

으로 대응하며 상대적 균형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보다는 상대국의 군사력 변화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느슨해졌으며, 이는 다소 넓은 범위의 수준에서 균형범위가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군사력 균형범위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 군사력의 변화 기간을 살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의 군사력 표준값(Z)의 평균 변화는 약 24년간에 걸쳐 군사력의 상대적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1925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 동안, 특히 193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대적 군사력의 차이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상대적 군사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불안해졌으며, 보다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한 국가들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체제에서 힘의 구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은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중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무시 군사력 수준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는 군사력의 증진국에서 최대 강대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독일과 동맹을 맺어 생존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 두 국가는 주변국 대비 하위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불균형의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독일과 동맹을 선택하였고,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멸망하였으나, 이탈리아는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국가행동의 변경을 통해 승전국으로 충분한 국가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군비경쟁의 형태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였지, 감소나 유지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같이 군사력의 증가와 유지의 형태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의 행동을 통하여 불균형상태에서 전쟁발발 가능성과 힘의 증강과 회복에 관한 세력균형이론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행동

1.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가) 냉전시기의 국제적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 그리고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동맹과 협력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동맹과 협력국간에 대리전쟁(proxy war), 봉쇄(containment),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무기(nuclear weapon)와 우주전쟁(space war) 등에서 끊임없는 군비경쟁(arms race)을 하면서, 서방진영과 공산진영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추축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패망하였고,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도 전쟁에서 국력의 많은 소모로 중진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⁴⁾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는데, 미국은 바다라는 경계선으로 자국의 본토가 아니라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파견하였다. 소련은 비록 독일의 침략은 있었지만, 전쟁이 종결될 무렵 전쟁 참가를 선언하며, 독일의 힘이 사라진 대륙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위성국가를 형성하며 공산 국가권을 형성하였고, 이후에 바르샤바조약(Warsaw Pact)으로 새로운 힘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승전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형성하여 소련 중심의 공산권을 봉쇄하는 힘으로 활용하였다.

1950년대 소련의 수폭시험 성공으로 핵무기(nuclear weapon)가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고, 쿠바미사일 위기(1962년) 등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이 상호간의 자멸이라는 인식과 힘의 대립에 한계를 느끼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 졌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발전

24) ICPSR,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1950년대 국방비는 미국이 14,559 Mil.\$, 소련 15,510 Mil.\$, 영국 4,441 Mil.\$, 프랑스 3,018 Mil.\$로 소련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병력에서도 400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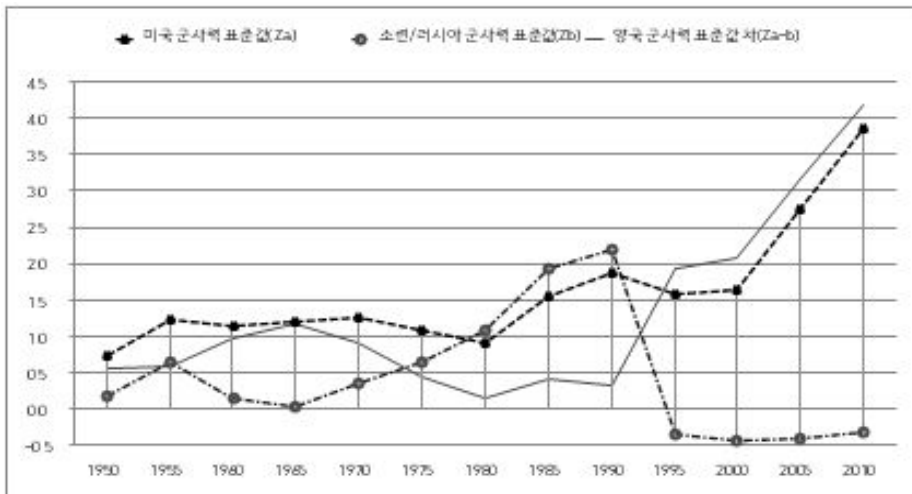
을 이룩한 국가들은 독자적 행동으로 프랑스의 중국과의 국교 회복과 1966년 NATO 탈퇴, 1969년 소련과 중국의 국경 무력충돌, 소련 위성국가들의 반소폭동, 베트남전쟁 등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다소 화해무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1972년)와 미·소 지하 핵실험제한조약 체결(1974년), 중·소 국가관계 개선 노력 등 동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랍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석유(oil)를 힘으로 한 집단행동과 국제경제의 파동과 동요, 제 3세계세력의 등장과 개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1989년) 등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갈등은 변화되는 국제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과 더불어 탈냉전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미국 유일 초강대국 체제로 변경되었다.

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분석과 국가행동

미국과 소련은 냉전기간 동안 서로를 적대국으로 하여 군비경쟁(arms race)과 힘의 확대(expansion of power)를 통하여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소련이 붕괴될 때 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지속적인 군비경쟁을 했다는 것을 <그림 6>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6>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간 군사력(P) 및 표준값(Z) 변화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변화는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들의 평균 표준값(Z)에 비추어 볼 때, 냉전기간 동안 상대적 군사력의 변화는 많이 발생되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이고 균형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 강대국 간의 군사력표준값차(Z_{a-b})의 평균도 0.61로 제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보아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30년 동안 양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간 군사력(P) 및 표준값(Z) 변화

구 분	'50	'55	'60	'65	'70	'75	'80	'85	'90	평균	'95	'00	'05	'10
양국 군사력비차 (P_{a-b})	1.19	1.25	1.42	1.53	1.20	0.82	0.09	0.07	0.15	0.86	2.28	2.42	3.65	4.83
양국 군사력 표준값차 (Z_{a-b})	0.55	0.58	0.97	1.18	0.91	0.44	0.16	0.41	0.33	0.61	1.92	2.07	3.15	4.1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양국의 군사력 수준은 미국이 우세한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0~1970년 기간에 양국의 군사력 불균형(군사력 표준값차(Z_{a-b}) > 0.9)이 냉전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1965년 불균형이 최고에 도달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은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에 대하여 압도적 군사력 수준을 유지한 시기였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군사력 균형 상태를 유지(군사력표준값차(Z_{a-b}) < 0.6)하였다.

이후 1980년에 양국 간 군사력의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우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미국도 시기를 같이하여 군사력을 증대하며 소련과 군사력 균형을 유지한다. 결국 소련은 미국과 가장 군사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1965년부터 미국에 대하여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하여 약 25년 이상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는데 약 30년이 소요되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이 프랑스의 군사력을 추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같으며, 1965년 실질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시작한 시기로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소련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과 군비경쟁에서 패배하고 붕괴하고 말았다.

미국의 상대적 군사력 수준은 1970년을 정점으로 유지되거나 약간의 감소 형태를 보였지만, 소련의 상대적 군사력 수준은 1965년 최하 수준을 벗어나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1980년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였고, 과거 미국 정부의 군사력 비교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초반의 소련의 군사력은 전략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그러한 평가 이유로는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협정 이행과 소련 내부의 정권 안정 그리고 1973년의 중동전쟁 개입 등을 들고 있다.²⁶⁾

소련과 미국의 국방비 수준을 살펴보면, 1950년에 소련의 국방비가 미국보다 많았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들어 정착한 핵 기반 전략이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 실효성있는 국방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국방비를 축소하였다.²⁷⁾ 그러나 한국전쟁, 쿠바미사일 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에 의한 미국의 국가이익과 정책을 지원하는데 한계(limited)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다시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 소련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속한 경제력 회복²⁸⁾으로 군사력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였으며, 1971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의 증가는 소련의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 제3세계에 대한 팽창과 가난한 동맹국²⁹⁾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병력면에서도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1985~1990년에 최고의 수준을 보였고, 해군력에 대한 국방비 투자 결과는 1980년에 나타났으며 과거 해군 톤수가 50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25) John M. Collins, "UNITED STATE/SOVIET MILITARY BALANCE" IB7802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81 Originated 1978), pp.16-22.

26) William G. Hyland, "The U.S.S.R. and USA,"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U.S.S.R. AND THE SOURCE OF SOVIET POLICY Seminar*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14th APR. ~ 19th MAY 1978), p.7.

27) Mearsheimer, *op. cit.*, p.78.

28) William H. Luers, "The U.S.S.R. and the Third World,"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U.S.S.R. AND THE SOURCE OF SOVIET POLICY Seminar*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14th APR. ~ 19th MAY 1978), www.wilsoncenter.org/ (검색일: 2013. 7.14), pp.73~75. 흐르시초프(Nikita Khrushchev)는 1956년 미국을 '묻어버릴 것(burrry)'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할 정도였다. 1960년대 부의 상대적 비중은 미국이 67%, 소련 33%였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소련의 경제력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경제력에 맞설 수 없었다.

29) Mearsheimer, *op. cit.*, p.78. 냉전시절 동안 소련의 미국보다 높은 국방비는 미국에 비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가난한 동맹을 가진 것도 원인의 한 가지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국가행동은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세력의 팽창과 봉쇄의 상호작용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이 군비경쟁을 한 국가행동 모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냉전시기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국가행동

한국, 중국, 일본만으로 한 상대적 군사력 비교와 변화는 <표 7>과 같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과 한국에 비하여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군사력비(P) 및 표준값(Z) 변화

구 분		'50	'55	'60	'65	'70	'75	'80	'85	'90	평균
중국 vs 일본	양국 군사력비 차 (Pa-b)	0.93	0.72	0.69	0.97	1.26	1.33	1.12	0.80	0.52	0.93
	양국 군사력 표준값 차(Za-b)	1.08	0.83	0.83	1.15	1.54	1.62	1.39	1.03	0.36	1.09
중국 vs 한국	양국 군사력비 차 (Pa-b)	0.98	0.74	0.91	1.21	1.86	2.03	2.36	1.95	1.58	1.51
	양국 군사력 표준값 차(Za-b)	1.13	0.85	1.03	1.37	2.10	2.28	2.55	2.10	1.71	1.68
일본 vs 한국	양국 군사력비 차 (Pa-b)	0.05	0.03	0.22	0.24	0.60	0.69	1.24	1.15	2.10	0.70
	양국 군사력 표준값 차(Za-b)	0.05	0.02	0.20	0.23	0.56	0.66	1.16	1.06	2.06	0.67

결국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력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며, 생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독자적으로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힘의 회복을 위한 국가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수준도 중국의 위협에 독자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다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한국보다 더

용통성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소련의 무기원조와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이용하여 생존의 힘을 독자적 노선에 맞추어 강화시켜나갔다. 적대국으로부터 무기와 빵을 얻으며 자기생존을 유지함으로써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외부로부터 생존 물자를 획득하며, 한국전쟁 등 제 3세계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국가위상과 국가방어의 중심(depth)을 확장시켰다.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육상 국경선으로부터 북한이라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두며 밀어냈고, 직접적 위협을 바다 멀리 위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큰 대륙과 병력중심의 군사력이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균형전략을 이용하여 국가 생존을 유지하였는데, 크고 작은 영토 분쟁 이전까지는 소련과 협력하며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서방에 협력하며 소련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패망 이후 전적으로 안보편승전략의 행동을 취하였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라는 힘의 온상에서 동맹과 협력자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강대국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다. 이후 일본은 1970년부터 그 안보의 울타리를 조금씩 벗어나 군사력을 키우는 등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경제력이 밀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동일하게 해군력의 증강에 중점을 두었고, 해양을 경계로 일본본토의 직접적인 공격을 방지하며 냉전시기 동안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 한국의 해군력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소련의 태평양함대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한국의 생존도 일본과 동일한 안보편승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큰 위협 속에서 미국에 의지하며 국제체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해야했다. 특히 중국의 막대한 힘을 한국전쟁을 통해 실감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은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서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해야했다.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과 맞대고 있는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해야만 했다. 냉전시기 동안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국제질서에서도 한국은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다.

3. 소결론

냉전기 동안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균형은 제1, 2차 세계대전($P_{a-b}=50\%$, 63% , $Z_{a-b}=0.77, 0.89$)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냉전시기 압도적인 군사력 수준을 유지한 국가는 전반기에는 미국, 후반기에는 소련이었다. 1960~1970년 미국과 소련의 상대적 군사력이 제1, 2차 세계대전 보다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소련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는데 성공했으며 더욱 군사력을 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비록 양국은 해양을 경계로 대치하였으나, 그 모습은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상대적 우위의 상황에서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한 프랑스와 그들의 군사력을 앞지르며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독일의 관계를 연상케 하였다.

이러한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는 냉전시기 동안 양국의 대립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냉전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에 대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1965년 이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미국과 소련 양국 모두에게 위협적일만큼 군사력 균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한 중진국이었다. 냉전 초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해가며 자신들의 독립을 지원한 미국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공산화된 중국이 소련과 같은 체제를 택하여 소련과 전략적 공조를 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영토분쟁으로 소련과 결별하게 된 중국이 공산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소련에 대항하는 독립적 대립체제를 형성하며 전세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미국에 더해 새로이 형성된 중국과의 전선에도 군사력을 투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이후에도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하며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였지만, 해양을 두고 대치 중인 미국을 상대로 비교적 비슷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미국을 상대로 해군력 우위 상태에 서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맞이하며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만약 이러한 분쟁 없이 소련과 중국의 협력체제가 지속되었다면, 소련과 중국 연합 우위에 의한 불균형 상태에서 세계는 다시 한 번 열전(hot war)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힘의 균형이 깨진 것과는 달리 냉전기 동안 국제체제는 힘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졌기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약소국들도 최소 균형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노선을 취하게 된다. 최소한의 균형범위 내 전력을 보유했던 중국과 같은 국가라

면 독자적 국가행동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다. 반면 무시 군사력 수준이었던 한국과 일본은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처럼 생존을 위해 강대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힘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은 어려웠고, 특히 한국은 생존을 위한 균형범위 내 군사력마저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대국에 편승해야 했다. 물론 한·일 양국이 나란히 미국의 안보에 편승하였다고 서로 완전한 협력 관계나 우방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V. 경험적 고찰결과와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1. 경험적 고찰을 통해서 본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발생하고, 균형이 유지되면 평화가 유지되며,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하여 군사력을 증대하고 협력을 한다고 이론을 재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냉전시기의 군사력의 균형수준을 종합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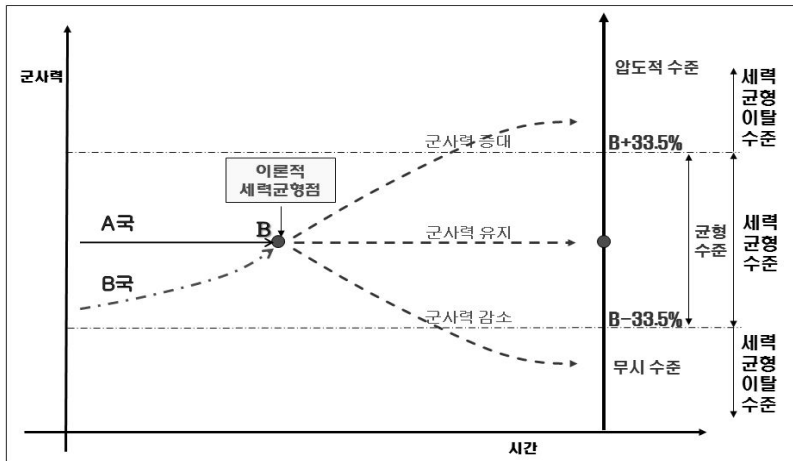
<표 8> 군사력의 균형수준 종합 결과

구 분	1차 대전 이전	2차 대전 이전	냉전시기	평 균
군사력비차 (Pa-b) 평균	0.5	0.63	0.89	0.67
군사력표준값차 (Za-b) 평균	0.77	0.89	0.93	0.86

과거의 경험적 자료를 종합하여 군사력 균형값은 군사력비(P)가 0.67, 표준값(Z)이 0.86으로 산출되었다. 군사력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균형 군사력비(P)는 67%로 균형구간이 $B \pm 33.5\%$ 이며, 균형표준값(Z)은 0.86이라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군사력비(P) 0.67은 군사력의 균형수준 100%를 기준으로 군사력의 양을 비교하는 것으로 A국이 133.5%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B국이 66.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A국에 대하여 B국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대국의 군사력 수준이 33.5% 이하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군사력의 불균형에서도 무시 군사력 수준이며, 133.5%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면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의 틀에서 제기한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와 같다.

<그림 7> 세력균형과 군사력의 구체적 상관관계



군사력표준값(Z) 0.86을 기준으로 균형범위(range) 이하이면 균형 상태이고, 이상이면 균형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종합된 균형 전력비(P)와 균형표준값(Z)을 적용하여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의 군사력 균형을 다시 살펴본다. 먼저 일반화된 균형 군사력비(P)를 이용하여 시대별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 수준을 보유하고, 어느 국가가 강대국이고 약소국인지 판단하여 보자. 시대별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을 비교하여 종합해 보면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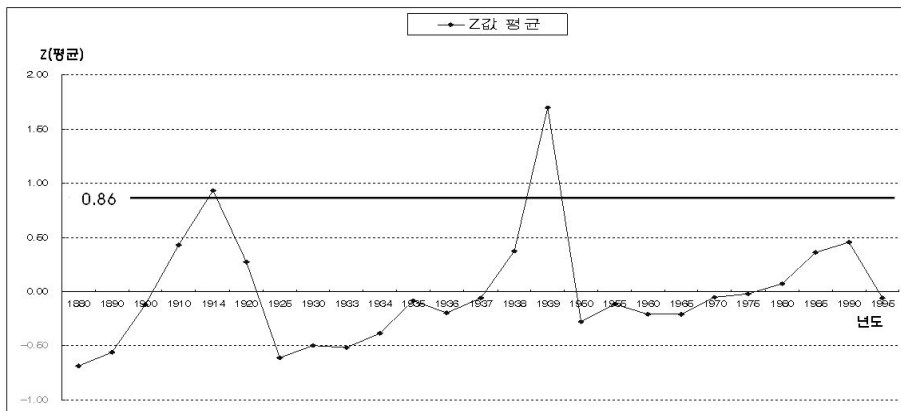
<표 9> 전력비(P)를 적용한 시대별 국가의 군사력 수준

구 분	압도적 군사력 (강대국)	균형 군사력 수준 (중진국)	무시 군사력 수준 (약소국)
1차 대전 이전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
2차 대전 이전	소련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냉전시기	미국, 소련	중국	한국, 일본

제1,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독일이 최대 강대국이었지만, 전반적인 기간을 볼 때는 중진국이었고,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한 국가는 영국, 러시아, 소련이었다. 이탈리아는 역사가들이 지적하였듯이 무시군사력 수준을 보유한 약소국이었다. 그리고 냉전시기는 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이었고, 중국은 중진국, 한국과 일본은 약소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균형표준값(Z)를 이용하여 불균형과 균형을 살펴보자. 먼저 균형 표준값(Z) 0.86을 기준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삼국동맹국과 삼국협상국 간에는 삼국동맹이 성립된 1890년부터 균형은 깨졌고, 1907년 삼국협상이 성립된 시기에 군사력이 역전되어 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삼국협상으로 이동하는 1914년에 최고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와는 1914년에 균형이 깨지고 독일과 영국 및 소련과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추축국과 연합국 및 소련과는 1936~1937년에, 독일과 프랑스와는 1938년에, 독일과 영국은 1939년에 균형이 깨졌다. 일본과 미국은 1939년에 불균형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냉전시기는 미국과 소련이 1960~1970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지만, 소련과 중국의 군사협력으로 균형은 유지되었다.

〈그림 8〉 연도별 국가들의 군사력 표준값(Z) 평균



년도	1880	1890	1900	1910	1914					
1차대전(Z평균)	-0.69	-0.56	-0.12	0.43	0.94					
년도	1920	1925	1930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2차대전(Z평균)	0.28	-0.61	-0.50	-0.52	-0.38	-0.08	-0.20	-0.06	0.38	1.70
년도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냉전시기(Z평균)	-0.28	-0.12	-0.21	-0.21	-0.06	-0.02	0.07	0.36	0.46	-0.06

여기서 과거 사례 연구결과에서 군사력 표준값(Z)을 이용하여 그 시기별 국가들의 전반적인 평균 군사력 차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들의 군사력 표준값(Z)의 평균은 그 지역 국가들 전체의 특정시점에 대한 군사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균형 수준 또는 불균형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냉전시대의 국가들의 군사력 표준값(Z) 평균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도별 군사력 표준값(Z)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시점의 군사력의 차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되었고, 평균 표준값(Z) 0.86을 넘어서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는 시점의 군사력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불균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합된 결과에서 국가 간과 국가군 간에도 군사력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들의 군사력 차이와 변화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산출된 군사력비(P)와 표준값(Z)을 이용하여 국가 간 및 협력체제간 균형과 불균형 시점, 전쟁이 발발한 시점을 고려하여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 동안 국가 간 또는 국가군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 7가지 사례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 국가 간 균형 상태에서 협력체제의 균형이나 불균형에 관계없이 평화는 유지되었고, 국가 간 불균형 상태에서 협력체제도 불균형 상태이면 전쟁이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균형과 협력체제의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고, 국가 간 또는 협력체제에 의한 균형 중 하나의 경우만 균형을 유지하여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표 10> 군사력 균형/불균형 및 전쟁과의 사례별 상관관계

시 기	년도	국가	상태	협력 여부	상태	최종 상태
1차 대전	① 1890년	독일	균형	O	불균형	평화
		프랑스		X		
	② 1910년	독일	균형	O	불균형	평화
		프랑스		O		

시 기	년도	국가	상태	협력 여부	상태	최종 상태
	③ 1914년	독일	불균형	○	불균형	전쟁
		프랑스		○		
2차 대전	④ 1938년	독일	불균형	○	불균형	전쟁
		프랑스		X		
	⑤ 1939년	독일	불균형	○	불균형	전쟁
		영국		○		
냉전시기	⑥ 1965년	미국	불균형	○	균형	평화
		소련		○		
	⑦ 1965년	중국	불균형	○	균형	평화
		일본		○		
냉전 이후		중국	불균형	○	?	?
		일본		○		

따라서 제1, 2차 세계대전은 군사력의 균형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국가 간 및 협력체제의 불균형상태에서 전쟁은 발생하였다. 그리고 냉전시기에는 군사력의 균형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었고, 1980년 이후 소련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는 시기에도 소련과 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평화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이 협력하여 미국과 군사력 불균형 상태에서도 미국과 소련 또는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가능성보다 평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국가 간보다 대륙국가 간의 불균형이 더 위협하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 간의 군사력의 불균형은 육군력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가 전쟁의 발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과 독일,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의 경우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군사력 불균형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양국가는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대륙국가는 우세한 육군력을 보유함으로써 해군력과 육군력이라는 힘의 대립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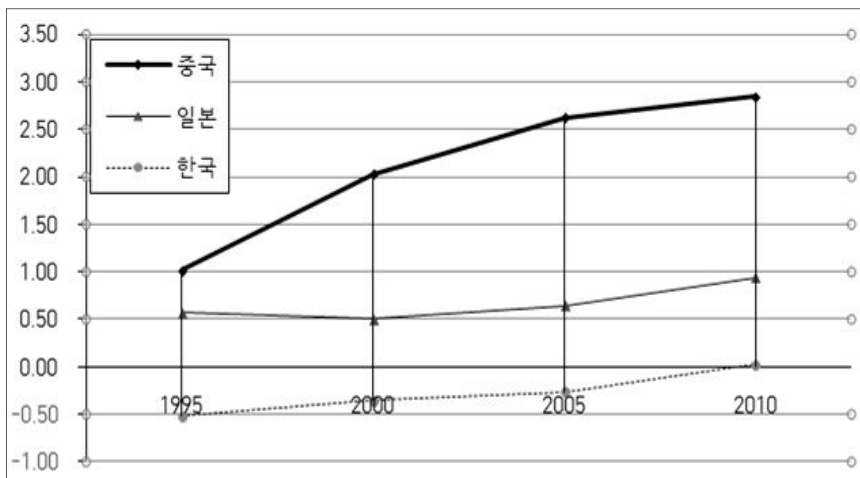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대륙국가 간의 군사력의 불균형 상태는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균형 상태에서는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간에는 해군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국가생존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질서는 균형과 안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의 구조에서는 불균형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림 9〉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표준값(Z) 변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사력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력의 균형은 깨져있고, 중국의 힘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병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 또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방비와 해군력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고, 항공모함 추가 건조 등 군사력 성장을 통해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역내 불안정 상태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둘러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군비경쟁의 형태를 보이며, 또 다른 변수로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안보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³⁰⁾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에는 초강대국인 미국 아래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 중진국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있으며, 약소국으로 한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러시아, 중진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약소국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유럽 질서를 연상케 한다. 프랑스와의 군비 경쟁에서 압도적 수준으로 승리한 독일, 군사력 하위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이탈리아가 생존전략을 펼치는 모습은 강대국 미국 아래 군비경쟁을 하는 일본과 중국,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자체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을 주저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지향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유사한데, 영국과 미국이 지역문제에 무관심하며 국내문제로 눈을 돌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던 것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흡사하다.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동북아시아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될 것이다. 군사력의 불균형은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와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주의 주장이 그대로 동북아시아에도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 사례에서 세력균형이론을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구도에서 국가간의 불균형과 협력체제의 불균형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V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힘의 균형을 위한 국가행동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자국의 노력에 우선하며, 자국의 노력으로 힘의 균형이 어려울 때 대외적 협력에 의한 힘의 증가와 균형회복을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양차 대전과 냉전시기를 통틀어 전쟁 당사자 양국이 자진하여 군사력을 감소한 경우는 없

30) Ashley J. Tellis, "Military Modernization in Asia" in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Strategic Asia 2005-06: Military Modernization in an Era of Uncertaint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6).; IISS, "The Military Balance: Executive Summary" (2011).

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군사력을 감소하는 경우는 예외적 이었다. 그리고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동맹이나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협력과 동맹은 국가이익에 따라 일시적이기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협력보다는 일시적 협력이 많았으나, 동북아시아는 장기간에 걸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세력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조(self-help)와 협력 또는 동맹(alliance)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무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협력이나 동맹이 필수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가는 단기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동을 하였으며, 4년의 단기간에서 30년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단기간 급격한 군사력 건설은 상대국에게 균형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친 군사력 증강에도 압도적 군사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대국과 군비경쟁에서 붕괴되는 사례도 보았다. 군사력이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지나친 군사력의 증강은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력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균형과 불균형에서 평화와 전쟁이 발생하고, 국가는 생존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내부적 자구의 노력과 외부적으로 협력에 집중하며, 이러한 국가행동에서 균형과 불균형이 재발생하기도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군사력을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과거 역사적 사례에서 세력균형은 적절한 현실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은 범위(range)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에게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상대국의 국가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자기 행동 결정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려 가능한 자기의 힘을 증대하고, 이러한 행동은 국제체제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냉전시기 동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균형에서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중국과 일본의 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냉전 이후 국제 질서는 세계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비관론이 병행하며,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의 두 번의 세계전쟁의 경험으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대한 갈등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냉전의 종료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당장 미국의 힘이 쇠퇴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중국과 일본의 급격한 부상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의 군사력 비교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증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역내 환경에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기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강대국으로 동북아 질서에 많은 영향 줄 것이며, 미국도 중국의 부상에 부담을 느끼며, 아태지역으로 전략의 축을 변경하고 군사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은 동북아시아에도 적합한 이론으로 균형의 파괴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서는 근시일 내에 군사력의 강대국으로서 위상의 확보보다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며,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전망되기도 한다. 중국의 군사력 우위가 향후 20~30년 내에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 위상을 차지하며, 미국과의 갈등과 협력이 상존하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이익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이상, 과거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봉쇄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협력체제에서 해결함으로써 중국의 지위를 존중하고 영향력은 차단하려는 행동을 할 것이며, 중국도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위하여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을 더욱 강화하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이탈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해양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력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의 시작은 해군력이며, 충돌의 가능성도 바다일 가능성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이 일본의 해군력을 추월하는데 40년(1995년 중국 총톤수 15만여 톤, 일본 30여만 톤,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을 추월하며, 2010년에는 일본대비 144%의 전력 수준 유지)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과

거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의 해군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국가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일본이 자구력에 의한 균형이 어려운 시점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불균형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여도 중국의 군사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상호 신뢰가 저하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갈등 요소가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관계 발전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 등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을 추진하며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대국화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협력의 상대를 찾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며, 100만의 지상군을 보유한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과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상황에서 한국은 무시수준의 군사력으로 자국의 군사력 증강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균형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강대국을 두고 선택의 딜레마로 고심해야할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과의 동맹은 북한과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변화되는 역내 질서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 방안이 해군력 강화를 통하여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적인 군사력이 없다면 생존을 위한 외부의 힘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국제사회의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가. 국문

- 김우상 역, 『신한국책략Ⅲ』 서울: (주)세창, 2012.
- 박성현, 『현대실협계획법』 서울: 민영사, 2003.
-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80.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Rowohlt Taschenbuch Verlag (1832).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1.
- Michael D. Swane and Ashely J. Tellis, *China's Grand Strategy*. Washington D.C.: RAND, 2000. 이홍표 역. 『중국의 대전략 : 과거, 현재, 미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8). 박건영 역. 『국제정치 이론』 서울: (주)사회평론, 2000.
- 기쿠치 히로시(菊地宏), 『戰略基本理論』 東京: 内外出版株式會社, 1980. 국방대학원 역. 『戰略基本理論』 서울: 국방대학원, 1993.

나. 영문

- Betts, Richard K. *Conflict After The Cold War: Argument on causes of war and peace*. New York: PEARSON Longman, 2008.
- Conway,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860-1905, 1906-1921, 1922-1946, 1947-1995*. Maryland: Conway Maritime Press, 1979, 1980, 1996.
- Gray, Colin S. *W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7.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9, 1999~2000, 2010*.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New York: Vintage Book,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8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 Morgenthau, Hans J.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85.

- Organski, A. F. K.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 Schuman, Frederick L. *International Politics* 4th ed. New York : McGraw-Hill, 1948.
- Schweller, Randall L. *Deadly Imbalances: Tripolarity and Hitler's Strategy of World Conquest*. N. Y.: Columbia Univ. Press, 1998.
- Waltz, Kenneth N.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1.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ight, Martin. *Power Politic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6.
- Wright, Quincy. *A Study of War* Vol. I,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2. 논문

가. 국문

- 김명수,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이동선, “21세기 국가안보와 관련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 『국제정치논총』 Vol. 49, No.5 (2009, 겨울).
- _____, “현실주의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안전보장.”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 2010).
- 이상국, “시진핑 시대 중국의동아시아 정책 방향.” 박창권·강인호·김창수 등.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4).
-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아시아 안보.”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2-1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6. 12).
- 최운도, “일본안전보장제도와 정책.”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 2010).
- 황지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군사안보 질서의 변화,” EAI NSP Report 44 (East Asia Institute, 2011. 2월).

나. 영문

-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Cause, Beginning and Prediction, The Power Transition,” *The War Leg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1980.
- Chatterjee, Partha. "The Classical balance of Power Theo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9, No.1 (1972).
- Collins, John M. "UNITED STATE/SOVIET MILITARY BALANCE" (IB7802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81 Originated 1978).
- CSIS, "Asian Defence Spending 2000-2011" (Oct. 2012).
-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Element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10, No.4 (1986).
- Gaidar, Yegor. "The Soviet Collapse: Grain and Oil," <http://www.aei.org/> (검색일:2014. 6. 20).
- Glaser, Charles. "Will China's Rise Lead to War,"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1).
- Goldman sachs. "World in 2050: The BRICs and beyond: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January 2013). <http://www.pwc.com/> (검색일: 2014. 6.25).
- Hyland, William G. "The U.S.S.R. and USA,"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U.S.S.R. AND THE SOURCE OF SOVIET POLICY Seminar*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14th APR. ~ 19th MAY 1978). www.wilsoncenter.org/ (검색일: 2013. 7.14).
- ICPSR.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 by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 IISS. "The Military Balance: Executive Summary" (2011).
- Luers, William H. "The U.S.S.R. and the Third World,"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U.S.S.R. AND THE SOURCE OF SOVIET POLICY Seminar*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14th APR. ~ 19th MAY 1978). www.wilsoncenter.org/ (검색일: 2013. 7.14).
- Mearsheimer, John J.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Monthly* Vol.266, No.2 (1990).
- Schroeder, Paul W.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 Schweller, Randall L.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 Balancing Proposition," *APSR* Vol.92, No.4 (December 1997).
- Singer, J. David.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14, No.1 (Oct. 1961).

- Soeya, Yoshihide. "Japanese Domestic Politics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ew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for Asia* (December 2009).
- Tellis, Ashley J. "Military Modernization in Asia" in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Strategic Asia 2005-06: Military Modernization in an Era of Uncertaint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6).
- Waltz, Kenneth N. "The Origin of War in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8, No.4 (Spring 1988).
- _____. "The Spread of Nuclear Weapon: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171 (1981).

부 록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육군병력(단위: 명)

구 분	1880년	1890년	1900년	1910년	1914년
영국	322,000	355,000	513,000	445,000	381,000
러시아	766,000	647,000	1,119,000	1,225,000	1,300,000
프랑스	503,000	502,000	673,000	713,000	846,000
삼국협상	1,591,000	1,504,000	2,305,000	2,383,000	2,527,000
독일	419,000	487,000	495,000	636,000	812,000
오스트리아-헝가리	240,000	337,000	375,000	410,000	424,000
이탈리아	200,000	262,000	230,000	292,000	305,000
삼국동맹	859,000	1,086,000	1,100,000	1,338,000	1,541,000
일본	70,000	74,000	210,000	225,000	250,000
미국	25,000	27,000	68,000	67,000	98,000

* 출처 :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Vol. I,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pp.670~671.; Kennedy, *op. cit.*, p.203.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전투함 톤수(단위: 톤)

구 분	1880년	1890년	1900년	1910년	1914년
영국	650,000	679,000	1,065,000	2,174,000	2,714,000
러시아	200,000	180,000	383,000	401,000	679,000
프랑스	271,000	319,000	499,000	725,000	900,000
삼국협상	1,121,000	1,178,000	1,947,000	3,300,000	4,293,000
독일	88,000	190,000	285,000	964,000	1,305,000
오스트리아-헝가리	60,000	66,000	87,000	210,000	372,000
이탈리아	100,000	242,000	245,000	327,000	498,000
삼국동맹	248,000	498,000	617,000	1,501,000	2,175,000
일본	15,000	41,000	187,000	494,000	700,000
미국	169,000	240,000	333,000	824,000	895,000

* 출처 : Wright, *op. cit.*, pp.670~671.; Kennedy, *op. cit.*, p.203 .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비교시도 타당함.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국방비(단위: mil. US\$)

구 분	1880년	1890년	1900년	1910년	1914년
영국	126	157	253	340	384
러시아	148	145	204	312	441
프랑스	157	186	212	262	287
삼국협상	431	488	669	914	1,112
독일	102	144	205	307	554
오스트리아-헝가리	66	64	68	87	182
이탈리아	50	79	78	122	141
삼국동맹	218	287	351	516	877
일본	9	24	69	84	96
미국	52	67	191	279	314

* 출처 : Wright, *op. cit.*, pp.670~671. 국방비는 해군 예산과 육군 예산의 합으로 함.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육군병력(단위: 명)

구 분	1920	1925	1930	1935	1938	1939
영국	485,000	216,121	208,573	196,137	212,300	897,000
소련	3,050,000	260,000	562,000	1,300,000	1,513,000	1,520,000
프랑스	660,000	684,039	522,643	642,872	698,101	4,895,000
독일	100,000	99,086	99,191	480,000	720,000	3,740,000
이탈리아	250,000	326,000	251,470	1,300,000	373,000	581,000
일본	260,753	212,745	200,000	350,000	1,000,000	1,440,000
미국	204,300	-	139,400	-	-	175,000

* 출처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305, 317, 320. 영국, 소련,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병력 자료.; 나카지마 하오 소유(中島資皓). 『完結 昭和國勢總監』第三卷(全 4卷一冊)(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1), p.274. 일본 병력자료. 1920년 자료는 1919년 병력을, 1925년 자료는 1926년 자료를 사용.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9." *20th Century Statistics*, www.census.gov/ (검색일: 2013. 2.10), p.888. 미국 병력자료 사용(1920, 1930, 1940~1945년)하였으며, 미해병대는 미포함(1920년 17,200명, 1944년475,600명).; Wright, *op. cit.*, p.670. 1937년 미국병력 자료 사용.; 1939년 병력 자료. www.spartacus.schoolnet.co.uk/ (검색일: 2013. 4. 5).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해군톤수(단위: 톤)

구 분	1920	1925	1930	1935	1938	1939
영국	3,662,070	1,693,108	1,656,426	1,491,884	1,614,112	1,667,178
소련	580,210	238,024	198,644	265,198	356,928	399,829
프랑스	916,534	544,481	585,522	612,458	634,002	632,557
독일	971,016	255,076	224,483	222,073	277,716	360,663
이탈리아	632,655	315,432	327,853	470,097	542,951	551,338
일본	656,384	812,636	958,027	1,052,025	1,180,449	1,256,230
미국	1,532,319	1,312,346	1,370,097	1,240,847	1,396,438	1,481,027

* 출처 : CONWAY MARITIME PRESS,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 1906-1921; 1922-1946* (Maryland: Conway Maritime Press, 1980).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국가 국방비(단위: mil. US\$)

구 분	1920	1925	1930	1935	1938	1939
영국	1,476	508	512	646	1,864	7,896
소련	1,183	1,448	3,520	5,518	5,430	5,984
프랑스	362	325	499	867	919	1,024
독일	79	148	163	1,608	7,415	12,000
이탈리아	306	160	266	513	746	669
일본	449	182	219	295	1,699	1,700
미국	1,657	590	699	806	1,131	980

* 출처 :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냉전시기 미국, 소련,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구분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육군력 (천명)	미국	1,386	2,730	2,306	2,463	3,066	2,130	2,050	2,152	2,180
	소련	4,300	5,800	3,600	2,930	3,535	3,575	3,568	5,300	5,300
해군력 (천톤)	미국	5,472	-	5,436	-	4,470	-	2,807	-	2,972
	소련	401	-	594	-	547	-	706	-	936
국방비 (Mil. \$)	미국	14,559	40,518	45,380	51,827	77,827	90,948	143,981	252,700	304,100
	소련	15,510	29,542	36,960	46,000	77,200	128,000	201,000	275,000	311,000

* 출처

- ① 육군병력: 1950년부터 1985년까지는 ICPSR,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1990년 이후는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 ② 해군톤수: 1950~1990년은 Conway,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47-1995* (1983).
- ③ 국방비: 1950~1985년은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1990년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0" (1991).

○ 중국, 일본, 한국 군사력

구분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병력 (천명)	중국	4,000	3,104	3,234	3,360	4,500	4,500	4,500	4,240	3,500
	일본	119	196	263	278	250	237	241	243	250
	한국	120	300	400	378	438	467	782	838	650
톤수	중국	6,880	-	6,880	-	13,800	-	122,560	-	148,070
	일본	6,980	-	43,082	-	107,272	-	221,738	-	328,608
	한국	2	-	8	-	16	-	17,315	-	65,557
국방비 (Mil. \$)	중국	2,558	2,575	6,728	13,788	23,776	28,500	28,500	24,870	22,330
	일본		378	454	853	1,650	4,535	9,298	12,480	28,410
	한국	32	81	99	112	271	579	3,309	8,491	9,100

* 출처

- ① 육군병력: 1950년부터 1985년까지는 ICPSR,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일본의 1950년 자료는 1952년 자료 사용.; 1990년은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 ② 해군톤수: 1950~1990년은 Conway,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47-1995* (1983); 1995~2010년은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 ③ 국방비: 1950~1985년은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5" (ICPSR 9903, 1990년); 1990년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0" (1991).

냉전시기 미국, 소련,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 탈냉전기 미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국가의 군사력

구분		1995	2000	2005	2010
병력 (명)	미국	1,636,000	1,455,000	1,546,000	1,569,000
	러시아	1,800,000	1,427,000	1,452,000	1,430,000
	중국	4,130,000	3,910,000	3,755,000	2,945,000
	일본	252,000	249,000	272,000	260,000
	한국	641,000	688,000	693,000	660,000
톤수 (톤)	미국	-	2,813,678	-	3,042,525
	러시아	-	745,469	-	829,300
	중국	-	364,958	-	566,097
	일본	-	272,116	-	302,024
	한국	-	102,623	-	155,981
국방비 (\$)	미국	279,000	302,000	503,000	693,600
	러시아	17,100	24,300	31,100	41,944
	중국	32,500	53,400	85,300	76,361
	일본	31,700	37,000	43,800	54,357
	한국	11,600	13,900	18,500	25,069

* 출처

- ① 병 력: The Military Balance 1995~2010.
- ② 국방비: 1995-2005년까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05"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ashington D.C, 2012).;
2010년 국방비는 The Military Balance 2010.
- ③ 톤 수: Conway,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47-1995.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1999-2000, 2010.

Abstract

**Balance of Power and the Relative Military Capacity
- Empirical Analysis and Implication to North East Asia -**

Kim, Myung - soo*

This study began to confirm or review the balance of power theory by applying scientific methods through experiential cases. Though there are several kinds of national power, this study supposes military power as a crucial power when it comes to war and peace. This research covered balance and imbalance through comparing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or nations' group. Comparison of relative military power can be achieved by statistically processing the values of which has been converted into the standard variables in same domain, then calculating the values of nation's power which has been synthesized different experiential factors. In addition, the criteria of experiential experiment is highly dedicated to European countries, USA, Japan prior to 1st and 2nd World War, as well as USA, Soviet Union and North East Asia during Cold War era.

In additio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has been redefined to review the action of the state upon the changes of power as mentioned in the theory. To begin with, the redefined theory states that relative level of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defines the consistency of peace and balance of power. If military power is enough to be on the range of level required to keep the power in equilibrium, peace and balance can be achieved. The opposite would unbalance the military power, causing conflicts. While the relative military level between nations change, nations seek to establish 'nations group' via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alliance, which also shift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 RADM Selected ROK Navy, 2nd Deputy Director, Directorate of Operations, ROK JCS.

nations group as well. Thus, in order to achieve balance of power, a nation seeks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self-help), while pursuing military cooperation(or alliance). This changes relative military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lso. In other words, if there exist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there is balance of power between nations group as well.

In this theory, WW I and II broke out due to the imbalance of military force between nations and nations group, and reviewed that due to the balance of military force during the Cold War, peace was maintained. WW I was resulted from imbalance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wo powerful states group and WWII was occurred because of the imbalance among the states. Peace was maintained from cooperation of military power and balance among the states during the Cold War. Imbalance among continental states is more threatening than maritime states and balance of power made by army force and naval force also is feasible.

Also the outcomes of two variables are found military power balanced ratio of military power for balance is 67% when variable ratio of balance is 100% and standard value for balance is 0.86. Military power exists in a form of range. The range is what unstabilized the international system causing nations to supplement their military powers. These results made possible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between state's military power.

How balance of power inflicted war and peace has been studied through scientific reviews. Military conflict is highly possible upon already unbalanced military powers of North East Asian countries, if the US draws its power back to America. China and Japan are constantly building up their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Korean military force is inferior so in accordance to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state's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drastic increase in military force like Germany did. Especially constructing naval force demands lots of time; however but has benefit that naval force can overcome imbalance between continental states and maritime states.

Key Words : Balance of Power, Balance of Military Power, Military Power, Army, Navy, Military Defense Expenditure